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2025-2026 <mark>아름답고 거룩한 전례</mark>



2025 10 / 19

[다해] 제2506호 연중 제29주일, 전교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제7회 교구장기 배드민턴대회 ▶

입당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2.1-5

화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 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 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미카엘성당 주임 **문종배(베네딕도) 신부**

말씀 KEY WORD

"너희와 함께" "메트 휘몬 (μεθ' ὑμῶν)

마태오 복음의 마지막은 처음과 닮아 있습니다. '임마누엘(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 1,23)'로 불리우시는 예수님은 복음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마태28,20) 모든 민족들이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한존을 살피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쁜 신앙의 삶으로 전교를...

요즈음 많은 이들이 전교하기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문명의 혜택들이 하느님을 찾기보다 그 삶에 안주하려 하기에 굳이 하느님을 찾거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의 이 세태들이 전교를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선교 사명이 현대 문명의 조화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교 의식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몇 년 전 전교주일 담화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란 잘못된 일들에 집착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소금과 누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선교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교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본연의 사명이며 첫째가는 사명입니다. 전교는 한 영혼의 구원이 달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화에 대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복음화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것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복음적인 삶으로써 증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2독서에서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산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4-15.17)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의 기쁜 삶을 이웃에게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보다 내가 복음의 기쁜 삶을 보여 주는 것이 현대의 참된 전교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쁜 신앙의 삶을 위하여...

② 연중 제29주일, 전교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모든 민족을 위한 희망의 선교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5년 희년에 맞이하는 전교 주일의 핵심 메시지는 희망입니다(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1항 참조). 저는 '모든 민족을 위한 희망의 선교사'를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 전교 주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한 희망으로'(1베드 1,3-4 참조)하느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교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1.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께서는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위한 평화의 계획인 아버지의 인류 구원 계획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겨 드렸습니다(예레 29,11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를 위한 최고의 모범이신 거룩한 희망의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례 받은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선교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온 누리에 널리 비추기를 바랍니다!

2. 만민을 위한 희망의 전달자이자 건설자인 그리스 도인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목 헌장 1항).

이 희망의 지평은 지나가 버릴 현세 사물을 초월하고 우리가 지금도 공유하고 있는 신적 실재들에 열려 있 게 해 줍니다. "현세에서 시작되지만 영원에서 완성되 는 초월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합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27항).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신적인 마음을 통하여, 하느님 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 사랑으로 끌어당기시며 모 든 이의 마음에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3. 희망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

오늘날 시급한 희망의 사명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보다 평화의 '장인들'이 되는 법, 자주 혼란 스럽고 불행한 인류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법을 깨닫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희망의 선교사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첫째 가는 선교 활동인 동시에 "희망의 첫째가는 동력"(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20.5.20.)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 활동은 곧 기도와 행동으로 친교를 이루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교회의 시노달리타스의 중요성, 그리고 세례 받은 이들의 선교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하고 신설 개별 교회들을 지원하는 교황청 전교 기구의 봉사를 강조하고자합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5년 1월 25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세계청년대회(WYD)를 향하여!

(9월 누적 집계 4,423,461단)

묵주기도 봉헌운동

기간 2025.8.1.(금) ~ 2026.12.31.(목) 대상 대구대교구 전 교구민 WYD와 청년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며 마침기도로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친 후 본당에 비치된 기도알을 기도함에 넣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요

『2027 WYD 대구 교구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 대회를 준비하면서, 조직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2027WYD@dgca.kr







미사의 구성

성차 전례 2

미사가 성체와 성혈의 축성 이후 절정에 이를 때, 사제가 두 손을 들어 "신앙의 신비여!"라고 외칩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 모두를 신비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열쇠입니다. 이 순간부터 마침 영광송에 이 르기까지의 부분이 바로 성찬 기도문입니다. 미사 전체의 중심이자, 하느님 사랑의 심장부라 할 수 있 는 시간이지요.

성찬 기도문은 단순히 사제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제는 교회를 대표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 미를 드리지만, 그 기도는 곧 온 교회의 목소리입니다. 신자들은 조용히 마음을 모으며 성찬기도문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라는 구원의 신비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 움직인다는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여!"라는 선포 뒤에 이어지는 회중의 응답 —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 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압축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수난과 부활, 그리 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희망이 한 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통해 세상 한가운데에 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속 선포합니다.

이후 교회는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분과 함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여기서 말하 는 '기념'(anamnesis)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 성령의 힘으로 우 리 안에 다시 현존하게 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기념을 통해 하느님의 구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닿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구(轉求)의 기도 안에서, 교회는 교황과 주교, 세상과 교회,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 난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찬의 식탁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 되어 하느님 안 에서 일치를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아가지만, 성령 안에서 언 제나 한 몸임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마침내 성찬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로 시작하는 영광송으 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사제는 성체와 성혈을 높이 들어 올리며, 모든 찬미와 영광을 성부 하느님께 봉 헌합니다. 그리고 회중이 힘차게 "아멘!"으로 응답하지요. 이 "아멘"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궁극의 동의이자,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찬 기도문은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며,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 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견되어. 그분의 사랑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7%

④ 연중 제29주일, 전교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교구 최초의 사제 서품식 거행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8년**

2월 16일(토)

경찰 사건에 관해서 영사에게 장문의 보고서를 보냈다. 무세 신부는 대석의 피정에서 돌아왔는데, 페셀 신부가 위 때문에 약간 지쳐 있더라고 한다.

2월 20일(수)

나의 보고서에 따라 영사는 외사국장(外事局長)을 만나러 갔다. 그 결과 경찰 규정이 견딜 만한 것이 되었다. 내일 선교사들에게 회람을 보냈다. 이 규정이 지방에서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카닥스 신부가 거의 회복되어 곧 퇴원을 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2월 21일(목)

거주지 증명서에 관해 선교사들에게 제37호 회람을 보냈다. 서품식을 위해 페랑 신부가 어제저녁에 왔고, 이 발도로메오[李尚華] 신부가 오늘 저녁에 왔다.

2월 23일(토)

서품식은 8시 30분에 시작되어 10시 45분에 끝났다. 사제 1명, 부제 1명, 차부제 1명, 삭발례 9명이었고, 서품식은 노래로, 미사는 독송미사로 거행되었다. 나와 함께 9명의 사제들이 안수를 했고, 이 새 교구 최초의 사제 서품식에 참석하기 위해 교구 전역에서 모여든 교우들은 대단한 무리를 이루었다.

2월 24일(일)

주 바오로[朱在用] 신부가 신학교에서 첫미사를 드렸다. 감사의 성체강복은 어제저녁에 있었다. 대성당에서 돌아오니 서품자들이 인사를 하러 왔다. 처음으로 비교적따뜻한 봄날이었다. 카넬 신부가 병원에서 쓴 편지가 왔다.

2월 25일(월)

오늘 아침에 주 바오로 신부에게 선서를 하게 하고, 이 발도로메오 신부가 진안(鎮安)으로 가게 됨으로 그에게 권한의 부여와 함께 함양(咸陽)을 임지로 배정해 주었다. 경찰이 여행 장소나 그 이유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유명한 거주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것은 참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그 원인은 내게 있었다고 할수 있다. 나의 교섭, 그리고 영사와 총독과의 교섭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는 얻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출처 :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전례는 새로운 '발견'입니다

- 1. 우리의 말들과 행동들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 2. 우리에게 익숙한 수많은 물건들을 허투루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봅니다.

전례의 해를 맞아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월간 실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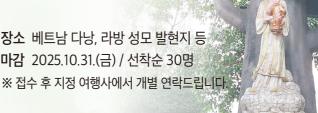
2026년 토비야해외 성지순례

일시 2026.3.2.(월)~7.(토)

대상 60세 이상 신자(동행인은 연령 무관)

신청 및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10)9461-3077

장소 베트남 다낭, 라방 성모 발현지 등 마감 2025.10.31.(금) / 선착순 30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10.27.(월)~11.7.(금) / 학사 전공 무관 수업 월요일 야간(남산동 캠퍼스)

혜택 전원 50%(성직자, 수도자 100%) 장학금

문의 660-5252 / (010)2584-6367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종교영성학과 박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10.27.(월)~11.7.(금) / 월요일 강의 대상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혜택 성직자, 수도자 100% 장학금 문의 850-3998 / (010)6563-0409

가톨릭신문

로고&제호디자인

20251013~12.19 공모전

- ●로고 디자인
- 제호 디자인 한글/영어
- 로고+제호 통합 디자인 한글/영어 (중복 응모 가능)

참가방법 온라인 접수 1인(1팀) 3개까지 출품 가능

참가대상 국내외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 참가 가능 시상내용 대상 1명 상금 500만 원 / 최우수상 1명 상금 100만 원 무이 010-9935-7671 가톨릭신문 창간 100주년 준비위원회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소세덕 히포리토 신부 (1921년 10월 21일 선종)

▶ 이성우 아길로 신부 (2021년 10월 23일 선종)

▷▷▷ 함께 드리는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20일(월) 11:00 범어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0월 21일(화) 19:30 다사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0일(월) 11:00 계산성당		10월 22일(수) 10:00 죽도성당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0일(월) 11:00 죽도성당	공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5일(토) 11:00 남산성당
한국여기회 회원미사	10월 20일(월) 11:00 성모당	-	-

수도회 | 피정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성모성심을 통하여 천주성삼께 영광을!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남자 수도 생활 성소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수도자의 삶에 관심있는 청소년, 청년 문의: 성소부, (010)5195-3217

재속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첫째 주일 (010)3308-1004 첫째 월요일 (010)4525-2467 넷째 주일 (010)3307-5772 넷째 월요일 (010)8587-7683 대상: 만 19세~만 55세

성모솔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기간: 11.7~9 / 12.12~14 / 1.9~11 매월 둘째주 금~일 (2박 3일) 문의: (010)3209-3955, 문자접수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11.22(토) 11:00~23(일) 16:00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8만원 / 문의: (010)5490-5345

효령하늘집 피정과 미사 안내

침묵과 관상의 개인 피정 면담과 치유 / 나도 가 볼까요? 미사: 주일 11:00, 수요 치유미사 16:00 문의: (054)382-0091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 2일 치유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 주(토) 14:00~(일) 14:00 장소: 초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 1박 2일(3식) 운행: 셔틀버스(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문의: (043)213-9103 / (010)5482-6744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5년 연중피정 접수중) 자연순례: 11.10~13 / 11.24~26 / 12.5~7 연말연시 특별피정: 12.31~1.3(한라산포함) 문의: (02)773-1455 / (064)796-4182

시설 | 기관 | 단체

2026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0.27(월)~11.7(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3,5(일반) / 850-3508(교육) / 660-5251~4(특수) https://www.cu.ac.kr

가톨릭대학교 2026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3(월)~14(금) 17:00 입학전형: 12.1(월) 14:00(석사과정) 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문의: (02)3147-8156, 866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 여, 비신자 포함 / 담당: 남원재 바오로 신부 문의: 650-4442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봉사자모집

분야: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문의: 256-9494

홈페이지: http://sungsim94.or.kr

2026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일시: 10.22(수) 10:30 장소: 백합어린이집 강당

대상: 2023~2020년생 영유아 학부모

문의: 256-6862

효성초등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기간: 11.3(월) 9:00~7(금) 17:00 대상: 2019.1.1~12.31 출생 아동. 조기입학자 및 2025 취학의무유예자 학교교육설명회: 10.25(토) 10:00, 샛별관 문의: 234-9500(사전예약)

바오로딸 문화영성프로그램

책과 수녀원브런치: 10.23(목) 11:00~13:00 행복한 책읽기: 8주 10.23~(목) 19:00 저자특강 염철호 신부의 성지순례기 : 10.25(토) 15:00~16:30 / 선착순 마감 신청: (010)6681-5185

체나콜로 10월 미사

성모신심미사와 기도모임에 마리아 사제운동 회원과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0.25(토) 10:00, 삼덕성당 대중교통, 공용 주차장 이용 문의: (010)9366-9170



652-9777 www.med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ᄬ형EnC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도시가스 신규 및 기존 배관시설 공사

도시가스 특정시설 관련 문의 환영

LPG 탱크설치 및 부대 공사 LPG 벌크공급 관련 문의 환영

🍄 바른동물의료센터

- ▶ 365일 24시간 진료
-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표원장 이세원(루까) 053-571-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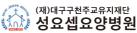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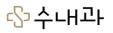
병원장 이 종 하(스테파노) 신부 TEL 053)615-4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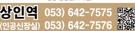
🦀 코리아알트만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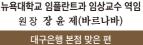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달서구 보훈위탁병원 지정









장 윤 제

연합치과





교구 [대리구]

교구청 신청사 주변 도로 포장공사 안내

기간: 10.21(화)~28(화)까지 성모당 방문객은 도보를 통해 교구청 정문 및 신학교 정문 이용바랍니다

10월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10.19(일) 14:00,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포항)4대리구청, (경주)황성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문의: 교구 성소국, 250-3071

가톨릭군위묘원 가족단 분양 안내

일시: 10.20(월)부터 / 묘원 현장 접수 절차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위령의날 군위묘원 버스운행 안내

일시: 11.2(일) / 예매: 10.20(월)부터 문의: 관리과, 250-3003 / 인당 2만원

133차 선택주말 신청

기간: 11.7(금)~9(일), 꾸르실료 교육관 대상: 1986년~2001년 미혼 청년

정원: 24명 / 신청비: 14만원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11월 카나호인강좌

일시: 11.16(일) 10:00~16:00 장소: 교육원 나동 4층 강당

참가비: 2인, 6만원(사전 신청) /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11.6(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2027 WYD 대구 교구대회 봉사자 1차 등록

대상: 관심있는 모든 교구민

마감: 11.22(토)까지

문의: 250-3116, daegu2027wyd@naver.com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비산성당 주일학교 동문 체육대회 개최

일시: 11.2(일) 교중미사 후

장소: 비산성당

문의: (010)2586-9191

▋시설 | 기관 | 단체

제3회 관덕정 가을 문화 강좌

가곡의 밤: 10.23(목) 19:00 10월의 마지막 밤을 위한 세레나데

: 10.30(목) 19:00

특강: 11.6(목) 19:00 김필영 엘리사벳 박사 문의: 관덕정, 254-0151

손상오 신부 화답송, 그레고리오 성가 이론 및 실기 연수

일시: 10.26(일) 14:00~16: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1층 가톨릭음악원 / 비용: 1만원 문의: (010)8581-2021

울릉도 천부성당 영성센터 순례 숙소

조용한 쉼, 묵상, 경관 좋은 곳

개관: 매년 4.1~10.31

필수: 미사참여, 기도생활

참고: 영성센터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예약문의: (010)4097-0090

한국여기회 '여기애인' 원고 모집

주제: 봉사, 자선 등 사랑실천 수기 분량: A4용지 2매 이내, 11p, 장평 160% 제출: juky311@naver.com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연락처 필수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0.21(화) 10: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문의: (010)9353-0345

전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6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사전서류접수: 2025.10.27(월)~11.7(금) 9:00~18:00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본당주임신부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문안

제출방법: 교구 문화홍보국(교육원 가동 3층) 방문 또는 우편

작보광고접수: 2025.11.20(목)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회의실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터 익일까지)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

010-4508-4328 010-2002-4328



류마티스 · 골관절염 통풍 | 섬유근통

죽전역 3번 출구 빌리브상가 3층 원장 **김지훈(미카엘) ☎ 558-7575**



유앤아이 결혼정보

010-6572-2233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70(남산동) 청라센트럴파크 상가 3층 307호 김 경 임 (아 녜 스)



온배, 북수만시, 검사선물, 프로포스 만시 골드바, 다이아몬드, 천연보석, 리세팅 대표 **임 선 우(마리아)**

 ▼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맞은편 왼쪽방향
☎053)428-7989 | 010-4439-9991
♥ 일요일 휴일
▼ 교동 공영주차장, 진흥 주차장 영업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6시



주·야간 혈액투석 만성질환 국가 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완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 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일 치 (안드레아) 라고목: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

동구 아양로 46 [신암동214-4] 2층 Tel 053 954 7582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억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심장검진|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척탑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